

소년 상인

XX동 공설 시장 바깥길 양편에는 어느덧 제법 풍성한 장이 서게 되었다. 시장 안에 자리를 얻을 길 없는 가난한 상인들이 행상 끝에 지겟짐이나 임짐 같은 것을 풀어 놓고 전을 벌이게 된 것이 시초인 모양인데 요즘 와서는 각처에서 모여든 전재민들이 하나씩 들썩 늘어 시장 안에 못지않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물건을 걷어 버리면 아무 경계도 없는 멍충한 한줄기 신작로에 지나지 않는 자리건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과 소유권이 있는지, 털보 야채 장수 자리는 언제나 방앗간집 앞이고 그리 늙지도 않았는데 앞니가 빠진 콩나물 장수는 늘 옹기점 옆에 자리를 잡았다.

한데 벌여 놓고 팔기는 하나마 그런대로 또 단골이 생겨, 나는 좀 물건이 탐탁지 않을 때가 있어도 야채는 털보 장수, 콩나물은 앞니 빠진 아주머니한테서 사고 있었다.

간밤에 비가 내려 몹시 땅이 진날이었다. 마른날도 언제나 질척한 장바닥은 더구나 수렁이 되어 있어 나는 장마당의 환조(喧噪)에 흐릿해지려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치마를 휩싸고 조심조심 발을 끌라 디디며 털보 장수에게로 갔다.

그 줄기 노상 중 제일 뚱뚱하고 제일 잘 웃고 제일 굵은 음성을 가진 털보 장수는 한동안 시장 안에도 전을 벌인 일이 있어, 밑천이 넉넉한지 항상 싱싱하고 소담한 물건을 해다 놓았다. 그래선지 단골 손이 많은 모양이었다.

그 때도 눈썹을 관자놀이까지 그린 캉캉한 젊은 여지가 무어라고 툭툭 쏘아붙이면서 비싼 홍당무를 사 가지고 가고, 머리쪽에 실이 꿰어진 바늘을 꽂은 중년 부인이 무 한 단 사는데 온통 무더미를 뒤집어 헤쳐 제일 나은 단을 고르느라고 법석을 하고 있었다. 털보 장수는 까닭 없는 푸념도 헤헤 웃으며 받고, 엉망이 된 못단도 헤헤 웃으며 다시 싸 재우고, 받은 돈을 꺼면 물을 들인 미군 잠바 호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다. 나는 눈이 벌개 가지고 무를 고르고 있는 중년 부인 옆에 서서 허리를 구부려 못단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 때였다. 바로 옆에서 이상한 어조로 “무 사세요. 무가 싸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어라 할까, 햇닭이 처음 화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하게 갈라지고 쉰 음성에 어린 미숙한 열기가 나의 가슴 한 구석에 와서 딱 닿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살폈다.

털보 장수 다음다음 자리에도 못단이 수북히 쌓인 곳이 있어 이상한 음성은 거기에서 온 듯하다. 나는 좀더 몸을 일으켜 그쪽을 응시했다.

거기에는 술한 못단을 앞에 쌓고 십시오 세 가량 되는 소년이 어리둥절하고 서 있었다. 여지껏 보지 못하던 소년이다. 보지 못하던 것은, 소년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점포 또한, 이 수삭을 거의 날마다 이 장에 오다시피 한 내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간판 페인트’라고 쓴 간판에는 회전을 상징하는 두어 줄기 띠를 띤 지구(地球)와 성좌(星座)들이 그려져 있고, 점명은 멋진 장식 문자로 ‘우주사(宇宙社)’라고 써어 있다. 안료(顔料)가 어지간히 퇴색한 데서 미루어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던 상점인 모양인데, ‘우주사’라

는 엄청난 점명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나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고소(苦笑)가 입가에 이는 것을 느끼며 ‘우주사’ 간판에서 소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소년은 진한 눈썹 밑에 초롱초롱한 눈을 무엇이든 삼켜 버릴 듯 뚱그랗게 뜨며,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르고 무슨 음악 곡조에나 맞추듯 발끝을 까닥까닥 까붙고 있다. 간간 무어라고 말을 하려는 듯 입가를 실룩거리나 어색한 듯이 속눈썹이 긴 눈을 두어 번 꺼벅거리고 손톱을 물어뜯는다. 그 태도에는 마치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신경질적인 운동 경기 선수 같은 도전적인 초려가 엿보였다.

일부러 깎지 않았는지 중대가리 머리가 제법 자라 올라 귀를 덮어 꽤 숙성해 보이는데, 가냘프고 동그란 뺨과 턱에 어린 티가 그냥 남았다.

한 사람 거른 자리에 벌인 같은 야채전이건만 털보 장수 물건이 부쩍부쩍 줄어 가는 데 비하여 소년의 무 더미는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는 나의 집요(執拗)한 시선을 느꼈는지 흘깃 이쪽을 건너다보았다. 늘씬한 미간이 옆얼굴보다 더욱 어려 보인다.

그는 내 얼굴에 비낀 호의의 빛을 시의(猜疑)스러운 듯 오히려 적의를 가지고 되물었다. 내가 경쟁자인 털보 장수의 단골인 까닭인가? 나는 그 솔직하고 유치한 단정이 귀여워졌다.

털보 장수는 다시 모여든 흥정꾼들을 상대로 통일된 호칭, 즉 ‘아주머니’를 연발하며 상거래에 여념이 없다. 나는 슬쩍 그 앞을 떠나서 소년에게로 갔다. 소년의 얼굴은 비에 씻긴 싱싱한 야채 그대로 밝아지고, 뺨에 피가 올랐다.

“아주머니 뭘 드릴갑쇼?”

그는 갈라진 목청이 마른 듯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호주머니에서 두 손을 다 빼었다.

그 때부터 나는 이 소년 상인의 단골이 되었다. 소년은 그날부터

아버지를 도우러 장에 나오게 된 것이라 하니, 말하자면 내가 그의 최초의 단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단골 손이라고 결단코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일이 없었다. 옛 훈장보다도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딱딱했다. 나를 단골로 인정한 뒤부터 소년은

“어서 오십시오.”

하며 낭독조로 그 이상한 어린 수탉 같은 소리로 외우는 인사를 하지 않고 멧쩍은 듯이 씨익 웃는다. 그것이 한껏 보이는 호의였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키는 때가 있어 소년이 혼자 물건을 지킬 때는 언제나 그 앞이 한산하다. 에누리를 한 것일지도 모르는 값을 고집하여,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막 덤비다시피 하는 소년 상인에게 사람이 붙을 리가 없었다.

소년은 이렇게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 대로 한동안 제 나름으로는 장사에 무척 힘을 쓰는 모양이었으나 점점 기운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소년이 보이지 않는 날이 며칠 계속되었다. 어느덧 친밀해진 소년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는 얼굴을 흐리고

“몸살이 난 모양이라서요. 허, 거 공부를 더 시켜야 될 것을…….”

나중 말은 혼잣말 같이 입속에서 얼버무렸다.

소년은 사오 일 후부터 또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 축이 간 것 같지는 않았으나 눈이 게슴츠레해지고 느른해서 내가 그 앞에 서서 배추통을 골라도, 고개도 들지 않고 무 줄거리만 마구 쥐어뜯고 있었다.

그 때까지 보이지 않던 소년의 아버지가 자리에 돌아와, 손에 들었던 종이 주머니를 아들 앞에 놓았다. 이윽고 나에게 누런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씻통 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한다. 소년은 아버지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머리를 두 어깨 사이에 파묻은 채, 여전히 무 줄거리만 뜯었다. 부인네들이 몇 사람 몰려왔

다.

손님 응수에 한참 바쁜 야채 장수는 손님의 요구대로 속에 든 못단을 꺼내려다 그만 종이 주머니 위에 무 더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머리를 어깨 사이에 파묻은 채 꼼짝도 않는 소년 앞에서 종이 주머니가 툭 하고 터지고, 동시에 속에 들었던 연시가 터져 벌건 감물이 진물같이 배어 개개였다.

아버지는 무엇으로 얻어맞은 듯 우뚝 섰다가 한숨을 쉬고 우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어느 날 나의 수중에는 돈이 겨우 무 한 단 살 만큼밖에 없었다. 그러나 맨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일이라, 못내 겸연쩍은 것을 그것 하나밖에 없는 까닭에 커다란 저자 바구니를 걸고 시장으로 나갔다.

소년 상인의 가게에는 무는 보잘것없는 것만 남았고 배추밖에 없었다. 소년은 요즈음 버릇으로 어깨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멀거니 앉아 있고, 아버지는 무 쓰레기 위에 쪼그려 앉아, 코 양편에 주름을 깊이 잡으며 쓴 듯이 곰방대를 빨고 있었다.

가난한 주머니를 가지고 다른 데를 또 돌아볼 염도 나지 않아, 그러면 장아찌 거리나 살까 하고 배추를 들척거리는데

“야 길순아!”

하는 소년보다는 맑은 소리가 뒤에서 났다. 고개를 돌려 보니 중학 정복을 입은 소년이 한 사람 내 옆에 와 서서 미묘한 얼굴로 소년 상인을 건너다보고 서 있었다.

소년 상인과 같은 연배의 동그란 그 얼굴에는 반가움과 놀라움과 또 한 가지 같은 동류끼리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일 필요가 없는 표정, 의식적인 까닭에 오히려 우월을 의미하는, 겸허와 동정이 깃들여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좇듯이 소년 상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소년 상인은 어리둥절한 모양으로 눈을 꺼벅거리며 손톱을 물어 뜯을 뿐 말이 없다. 약간 얼굴이 찌그러진 것은 그래도 웃으려 한 까

닭인가, 그는 친구의 얼굴에 오직 우월의 빛만 본 것 같았다. 그러나 반감보다는 열등감이 앞서는 모양이다.

두 소년은 그런 공기 속에서 한참 마주섰다가 중학 제모를 쓴 소년이 무슨 나쁜 일이나 한 것같이 어리석은 웃음을 띄우며 지시지시하다가, 다시 만나자는 기약도 별로 없이 흐지부지 헤어져 버렸다.

소년 상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발끝으로 무쓰레기를 밟아 뭉개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반감과 굴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소년의 그 모습에

‘허 공부를 더 시켜야 될 것을…….’ 하던 그 아버지의 말이 와 감돌았다.

나는 아무렇게나 손에 걸린 배추를 두어 통 바구니에 넣고 주머니를 툭툭 털어 값을 치렀다. 야채 장수는 돈이 빠죽이 내다 보이도록 두둑한 돈주머니에다 나의 전 재산을 가져다 보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소년 상인에게 또 일별을 던졌다. 소년 상인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심한 듯이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친구 소년은 걸쳐진 시선의 줄에 당기거나 한 듯이 뒤를 흘끗 돌아다보았다.

순간 소년 상인은 눈에 보이도록 몸을 바르르 떨고 주걱질이나 하듯 고개를 치켜들어 올리며 무엇에 떠다 메쳐지거나 한 것처럼 찢어지듯 소리를 질렀다.

“에에, 무 무 삼시요. 무가 한 단에 천오백 환!”

비명에 가까운 그 음성에는 절망적인 항거와 용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 자학적(自虐的)인 행동으로써 자기의 삶을 시험하려는 듯 연거푸 그 어린 수탉같이 갈라진 음성으로 외쳐 대었다.

“에에, 싸요, 무가 막 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자꾸만 ‘우주사’ 하고 되뇌었다. 그 우주사 앞에 야채전을 벌인 어린 소년 상인은 그 콧구멍만한 페인트점의 점명의 난센스를 생각해 본 일이 있었을까?

나도 일찍이 운명이 자기에게 무슨 부채(負債)나 가진 것같이 느껴졌을 때가 있어, 마음속 깊이 스민 하나의 의지가 동경과 절망과 초조를 빌어, 내 자신을 괴롭혔었다.

나 역시 파란 페인트를 칠한, 다 쓰러져 가는 콧구멍만한 점포에 '우주사'라는 큼직한 간판을 걸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참으로 인생이란 우스운 것, 거기선 진실과 허위가 같은 정도로 합법적이고, 실질과 허세가 도착한다. 고매한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였던 것만 결국 안이한 생활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깨어진 꿈의 파편조차 주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린 소년 상인이여! 차라리 그 이상하게 갈라진 어린 수탉 같은 음성이 털보 장수 같은 부드럽게 굶어지고, 흥정꾼의 까닭 없는 푸념까지 헤혜 웃고 받게 될 만치 신경을 없애라. 때의 흐름이 그대의 아픔을 씻는 때가 와 그 초롱초롱한 맑은 눈이 아침과 거짓에 흐려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털보 장수 같은 단순한 자족에 너그러이 몸을 맡길 수 있다면, 상인으로서의 욕심을 길러도 좋다.

오늘의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은 하나의 삶을 개봉(開封)하는 소리라고도 할까. 나는 무겁지도 않는 저자 바구니를 고쳐 쥐고 손톱을 물어뜯어가며 뻑뻑스럽게 흥정꾼들에게 마구 덤비는 소년 상인 위에 털보 장수같이 호인다운 너털웃음을 웃으며, 채신머리없는 여편네들의 비위를 맞추는 무신경한 아랫배와 욕심이 같은 정도로 번능란한 상인을 그려 보았다.

그 온후하고 교활을 내포한 호탈한 모습에서 오는 친밀감은 이쪽에까지 안심과 너그러움을 주는 것이었으나, 나는 소년을 위하여 그러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소년을 상상하자, 어쩐지 자꾸만 우울해졌다.

(1951. 11. 14.)